

남녀 태극전사, 일본 넘고 동아시아컵 접수한다



15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컵 한국과 대만의 경기. 3-0 대한민국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 콜린 벨 대한민국 감독이 강채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15일 오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9 동아시아컵 남자부 한국과 중국의 경기.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은 대한민국 김민재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역대 첫 동남 우승을 노린다. 남녀 태극전사의 우승 경쟁 상대는 모두 '숙적' 일본이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종전에서 나란히 일본과 격돌한다.

1승1무를 기록 중인 여자 대표팀은 17일 오후 7시 30분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2연승을 따낸 일본과 맞붙는다. 18일 오후 7시 30분에는 벤투호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연승의 일본과 우승 트로피를 놓고 한판 대결에 나선다.

남녀 대표팀 모두 일본을 무너뜨리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나라가 남녀 부에서 동반 우승하는 역사를 세운다. 더불어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처음 우

女-오늘 오후 7시30분 부산 구덕운동장

상대전적 4승 10무 16패 열세...막강 화력 봉쇄 관건 벨 감독, 강채림·정설빈 등 공격수 전진 배치 '역습 작전'

승 트로피를 올리는 나라가 된다. 여기에 여자 대표팀은 2005년 대회 우승 이후 14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탈환하고, 남자 대표팀은 역대 첫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다.

◇벤투호, 2경기 연속 필드골 '제로'의 답답함 극복이 과제

한국 남자 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41위로 일본(28위), 이란(33위)에 이어 아시아지역 3위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역대 전적에서

41승 23무 14패로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일전에서는 '가위바위보'도 저서는 안 된다는 남다른 '극일 정신'이 투영된 결과다.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과 일본 모두 유럽파 선수들이 차출되지 않아 최상의 전력은 아니다. 한국도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보르도),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유럽파 공격자원이 빠져면서 공격의 무게감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원톱 공격수 자원으로 뽑힌 김승태(전북)와 오른쪽 풀백 김문환(부

男-내일 오후 7시30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41승 23무 14패 우위...손흥민 등 유럽파 빠져 전력 약화 고질적 골 결정력 부족 극복 관건...벤투 감독 용병술 기대

산)이 부상으로 나란히 도중 하차하는 통에 분위기도 그리 좋지 않다.

특히 홍콩(2-0승)과 중국(1-0승)을 상대하면서 한국은 3골을 넣었는데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었다. 필드업을 통한 필드골이 전혀 없다는 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은 중국전에서도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일본전을 앞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콜린 벨 감독의 첫 한일전

여자 대표팀은 세계 최강 전력의 일본을 상대로 고전해왔다. 여자 대표팀의 일본 전 역대 전적은 4승 10무 16패로 열세다. 최근 4경기 연속(2무2패) 승리가 없다.

지난 10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콜린 벨 감독은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육석 가리기'를 펼친 끝에 23명의 선수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난적' 중국과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한국은 2차전 상대인 대만을 맞아 강채림(인천현대제철)의 멀티골과 정설빈(인천현대제철)의 썩기골로 3-0 승리를

거뿐다. 벨 감독의 부임 첫 승리와 첫 득점 순간이었다.

벨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파격적인 전술 실험을 펼쳤다. 중국과 1차전에 선발로 나섰던 선수들을 모두 빼고 대만과 2차전에서 새로운 11명의 선수에게 기회를 줬다. 주전조와 백업조의 구분이 아닌 상대에게 적합한 선수들로 엔트리를 완성한 벨 감독의 용병술이었다.

일본은 이번 대회 두 경기에서 무려 12골에 무실점으로 무서운 화력을 과시했다. 대만을 상대로는 무려 9골을 쏟아내는 화끈한 결정력까지 선보였다.

이에 따라 벨 감독은 수비 조직력에 방점을 두고 공격능력이 뛰어난 강채림, 정설빈, 주효주(울산과화대), 여민지(수원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역습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K리그 미래 밝히는 '유스시스템'

U20 월드컵 12명 배출...경기력 향상에 K리그 인기 주도

유소년 출신 영플레이어들의 활약이 K리그의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K리그는 올 시즌 1·2부 합계 누적관중 237만 6924명을 기록하면서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230만 관중을 돌파했다.

치열했던 순위 싸움이 흥행에 한몫을 했고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이 '화수분 K리그'의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올 시즌 K리그는 '국제 대회 효과'를 특별히 누렸다. 특히 준우승의 위업을 이룬 U20 월드컵의 열기가 그대로 K리그 무대로 이어졌다.

U20 월드컵 대표로 참가한 21명의 선수 중 20명은 K리그 소속이었고, 이 중 12명은 K리그 유스 출신이었다.

놀라운 스피드로 눈길을 끈 '엄살라' 엄원상도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유스 출신이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 정착을 위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연맹은 2008년 K리그 전 구단 유소년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말리그인 'K리그 주니어리그'를 실시했다.

이어 2013년 유소년 지도자의 해외 연수를 첫 시행했고, 2014년에는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2015년 U18/17 챔피언십(하계 토너먼트 대회)을 시작으로 2018년 U15·14대회를 신설했고, 올해는 연중 리그로 확대했다.

이 외에 K리그 유스시스템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가능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U22 의무출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출전제도에 따라 U22 선수는 엔트리에 2명이 의무적으로 등록되고, 1명은 선발로 경기에 나서 경험을 쌓고 있다.

내년 시즌부터는 군팀인 상주 상무에도 U22 의무출전제도가 적용되는 등 유소년 육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정착과 경기력 향상이 이뤄지면서 K리그는 흥행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美 언론 "범가너 농친 다저스, 류현진 영입 올인"

매디슨 범가너(30)까지 농친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자유계약선수(FA) 류현진(32) 영입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BS스포츠는 16일 FA 범가너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행을 알리면서 다저스가 류현진 영입에 전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저스는 최근 수년 동안 월드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가을마다 눈물을 삼켰던 다저스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확실한 선발 투수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저스의 첫 번째 영입 목표는 FA시장 최대어 투수 게릿 콜(29·뉴욕 양키스)이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최고 대우인 8년 3억 달러의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콜은 9년 3억 2400만 달러에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를 농친 다저스는 눈을 돌렸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다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에이스 코리 클루버(33)를 트레이드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텍사스 레인저

스와 트레이드를 진행했고, 클루버는 16일 텍사스로 이적했다.

이제 스토브리그에 남은 선발 자원은 류현진, 맬리스 카이클(31) 정도다.

다저스는 류현진 영입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최근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류현진 영입 전에 뛰어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전력 보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저스의 스토브리그 행보는 류현진에게 분명한 호재다.

/연합뉴스



내년 프로야구 3월 28일 개막...KIA, NC와 홈 개막전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020시즌 첫 승을 노린다.

KBO가 16일 2020년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2020시즌은 토요일인 3월 28일 시작되며 팀 간 16차전,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른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토요일 개막이다. 2020시즌에는 도쿄 올림픽으로 인한 휴식기도 있다.

개막전은 2018시즌 최종 팀 성적에 따라 상위 5개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2018시즌을 5위로 마감했던 KIA는 N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2연전으로 2020시즌을 연다.

챔피언스필드와 함께 잠실(롯데-두산), 고척(LG-기움), 문학(삼성-SK),

대전(KT-한화) 등 5개 구장에서 시즌 첫 대결이 전개된다.

KIA는 이어 3월 31일부터 LG와 홈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호랑이 군단'의 2020시즌 첫 원정지는 부산이다.

KIA는 4월 3일 부산으로 건너가 롯데와 주중 3연전을 갖고 첫 원정 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광주(기움-KIA)를 비롯한 잠실(두산-LG), 문학(한화-SK), 수원(롯데-KT), 대구(NC-삼성)에서 진행된다.

7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KBO 정규시즌이 일시 중단된다. 도쿄올림픽 야구 종목은 7월 29일 일정을 시작해 8월 8일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